

문 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 하셨는가?

답 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것은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있는 부르심 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에베소서 2:8, 4:15-16; 요한복음 6:63, 15:55; 고린도전서 1:9, 6:17; 베드로전서 5:10; 갈라디아서 2:20

질문 1: 누가 우리의 구속을 사셨는가?

질문 2: 누가 우리에게 구속됨을 적용하시는가?

질문 3: 구속을 적용하는 세 단계는 무엇인가?

질문 4: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5: 우리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인가?

질문 6: 효력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질문 7: 효력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질문 8: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인가?

질문 9: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설명:

이미 배운바와 같이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아주 묘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그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담당하신 사역을 구별하여야 한다.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성자를 구속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성자는 그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은혜가 죄인들에게 적용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사역입니다.

구속을 적용하는 세 단계는, 첫째,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단계이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속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하시기를 원하는 죄인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 마음을 미리 준비하신다.

둘째, “효력있는 부르심”으로 믿음이 심어진 자를 부르시는 단계이다. 하나님의 구속적 부르심은 완벽하며 그 부름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부르심이다. 잠시후에 효력있는 부르심에 대해 더 알아 보기로 한다.

셋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즉 성령님의 구속적 사역의 절정을 말한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구속사역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전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자에게는 성령이 계신것이며 성령의 계심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내것으로 만들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한다. 믿음은 오늘 이 땅에서 고난중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의 사역을 인정하게 만들며 이성, 감정,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 되시며 나의 주인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며 받아드리도록 한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2:19-22 을 다시 자세히 읽고 묵상하자. 특별히 20 절은 사도바울의 간증의 절정이기도 하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은 구속 받은 사람의 영적상태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해주는 대목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의 생명의 중심에 믿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것임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구속사역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효력있는 부르심을 통해 죄인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 부르심 (콜링)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정한 정확한 시간과 상황안에서 세상으로 부터 구별하시는 것을 말한다. 콜링은 인격적이며 관계적이기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와 위치에 동참하게하는 놀라운 은혜이다.

효력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깊이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효력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무도 뿌리치거나 궁극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콜링을 말한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콜링에 있게되면 마치 처녀 총각이 한 눈에 반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즉, 서로에게 끌리는 그 마음은 마치 누군가가 확 잡아 당기는 듯 한 것이다. 첫눈에 반한 사람들이 마치 정신을 잃은 듯한 느낌을 갖는것과 같이 믿음이 콜링을 받게되면 정신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효력있는 부르심이란 결론적으로 믿음은 반드시 콜링에 확실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사랑을 맛보면 모든 다른 것을 포기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효력있는 콜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시 27:14 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효력있는 콜링의 근거는 무엇인가? (고후 5:14)

효력이 없는 부르심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적용하시는 역사는 실패할 수 없다.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된 계획을 하나도 오차가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55:10-11)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다.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그 머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상관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하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가 병들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 역시 성령님의 적용하심이 있기 때문이다.